

러시아의 재부상과 동북아

장덕준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푸틴의 집권 이래 러시아는 국내 정치의 안정과 석유 가격의 상승세를 배경으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국제무대에서 공세적 외교를 추구해왔다. 미국에 대해서는 핵무기 감축 등에 있어서 협력을 해 나가는 한편으로 미사일방어체제(MD)의 구축 등에 있어서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유럽에 대해서도 에너지 공급자로서의 지위를 활용해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또한,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에서는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및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를 통해 자신의 특권적 지위를 유지하기를 원한다. 한편, 러시아는 동북아에서도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러시아는 중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동북아 역내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제고하는 한편으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도 참여하는 등 주요 역내 문제에 개입해왔다. 한국은 글로벌 무대와 동북아 지역에서 존재감이 높아진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확보함은 물론,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의 추진은 그러한 방안 가운데 하나이다.

주제어 러시아, 푸틴, 에너지, 공세적 외교, 동북아, 한반도 가스관

I. 머리말

소련의 붕괴 이후 급격한 쇠퇴의 길을 걸었던 러시아가 다시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008년 8월 러시아-조지아 전쟁에서 러시아 연방군대가 조지아의 수도를 향해 진격하고 있을 때 세계 각국의 언론은 이를 세계정치 무대로 러시아가 재등장한 사건이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1990년대 러시아가 겪었던 국내적 혼란과 대외적 위신의 추락은 2000년대 접어들어 정치사회적 안정과 국제무대에 있어서의 발언권 증대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사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에너지 부국 러시아는 10년 가까이 지속된 국제 석유 가격의 고공행진에 힘입어 스스로 에너지 초강대국으로 자처하면서 국제정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국제무대에서 강대국의 지위를 추구해왔다. 러시아가

국내외적인 혼란과 쇠퇴를 경험할 무렵이었던 1990년대조차도 많은 정치엘리트들은 러시아가 다시 강대국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해왔다(Larson and Shevchenko, 2010: 194). 같은 맥락에서 1993년의 ‘러시아연방의 대외정책 개념’에 나타나 있듯이, 러시아는 국제무대에서 강대국의 위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더불어 러시아는 옛 소련의 영역 안에서 안정과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천명한 바 있다(Russian Federation, 2005). 특히, 러시아는 소련 붕괴 이후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지역적 강대국의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최근 대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크렘린에 복귀한 블라디미르 푸틴의 대외정책 기본방침에서도 확인된다(Путин 2012). 푸틴은 일찍이 세계무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대국의 지위로 러시아를 올려놓겠다는 야심을 공공연하게 표출해왔다(Baev, 2003: 2-3).

이렇듯, 최근 국제무대에서 러시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한편으로, 서방의 현실주의자들은 가공할 만한 군사력을 갖춘 권위주의 국가인 러시아와 중국이 소위 ‘반자유주의 연합’을 형성한 채 보편적인 가치를 전 지구적으로 확산시키는 글로벌화 시대의 국제질서에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본다(Armijio, 2007: 33). 다른 분석가들에 따르면, 러시아는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에 이르러 다시 한번 초강대국이 되려는 야망을 품고 있으나, 사실은 제한적인 국력으로 인해 세계무대에서의 영향력은 미미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Lo, 2008; Wieclawski, 2011).

그렇다면 러시아는 지역 강대국을 넘어 글로벌파워로 등장하고 있는 것인가? 러시아가 재부상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러시아의 재부상을 보여주는 근거는 무엇인가? 동북아와 한반도에 있어서 러시아 재부상의 실체와 그 영향, 그리고 함의는 무엇인가? 본 논문에서는 러시아 재부상의 실상과 그 한계를 살펴보기 위해 러시아 대외정책의 기초와 주요 외교사례를 분석한다. 이어서 국제무대에서 다시 목소리를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가 동북아에 대해 어떠한 외교적 전략과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재부상이 한국외교에 던지는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짚어 보기로 한다.

II. 러시아 재부상의 배경

1. 러시아의 국력 현황

소련이 붕괴된 직후 러시아는 국내적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위상에 있어서도 급격한 영향력의 하락을 경험했다. 정치 및 경제 체제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민주화와 시장개혁은 러시아 시민들에게 엄청난 후유증을 안겼다. 급기야 1998년에는 외환보유고가 78억 달러로 바닥을 치는 한편, 루블화의 평가절하와 외채에 대한 지불유예선언(모라토리엄)이 이어지는 등 금융위기가 절정에 달했다(전홍찬, 2006: 169). 소련의 해체 이후 10년 만에 러시아 국내총생산(GDP)은 반 토막이 났다. 1990년대 말 무렵 러시아는 1,959억 달러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로 세계 16위를 기록했고 구매력 기준 일인당 국민소득(GDP per capita at PPP)으로는 세계 80위에 머물렀다(White, 2011: 139; 전홍찬, 2006: 126).

그러나 블라디미르 푸틴이 집권한 이후 러시아는 국제 석유 가격의 상승에 힘입어 꾸준한 경제회복세를 보였다. 2004년경에 접어들어 러시아 경제규모는 1992년 수준 이상으로 회복했으며 2008년 금융위기 직전 무렵에는 명목가치로 계산한 국내총생산이 9,254억 9천만 달러(SDR 환산)에 이르렀다(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2). 러시아는 이러한 경제적인 성과와 더불어 자국이 보유한 엄청난 에너지 자원을 배경으로 국제무대에서 발언권을 높여갔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러시아는 세계 제1위의 천연가스 매장량과 세계 제7위의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에너지 초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다. 이러한 풍부한 에너지 자원은 러시아의 대외정책에 있어서 유용한 지렛대로 활용되어 왔다. 2006년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열린 주요 8개국(G8) 회의에서 러시아는 에너지 공급국으로서의 위상과 영향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표 2에서 보이듯이, 국내총생산(GDP) 규모로 볼 때 오늘날 러시아는 대략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갖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경제규모로 보면, 러시아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 강대국들과는 아직도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할

표 1 러시아의 부존 에너지 자원 현황

순위	국가	천연가스 매장량 (1조 m ³)	전 세계 비중 (%)	순위	국가	석유 매장량 (1억 배럴)	전 세계 비중 (%)
1	러시아	44.8	23.9	1	사우디아라비아	264.5	19.1
2	이란	29.6	15.8	2	베네수엘라	211.2	15.3
3	카타르	25.3	13.5	3	이란	137.0	9.9
4	사우디아라비아	8.0	4.3	4	이라크	115.0	8.3
4	투르크메니스탄	8.0	4.3	5	쿠웨이트	101.5	7.3
6	미국	7.7	4.1	6	아랍에미리트	97.8	7.1
7	아랍에미리트	6.0	3.2	7	러시아	77.4	5.6
8	베네수엘라	5.5	2.9	8	리비아	46.4	3.4
9	나이지리아	5.3	2.8	99	나이지리아	37.2	2.7
	전 세계	187.1	100		전 세계	1383.2	100

출처: British Petroleum (2012).

것이다. 말하자면, 러시아는 아직까지는 국력 면에서 주요 글로벌 강대국 그룹 가운데 두 번째 층위(second-tier)의 국가군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Hancock, 2007: 87).

그러나 러시아는 에너지 부국으로서의 잠재력과 기초과학과 방위산업에서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강대국 반열로 도약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201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해 크렘린으로 복귀한 푸틴은 대통령 선거 유세기간 중에 러시아를 일인당 국내총생산 35,000달러의 세계 5대 경제대국으로 올려놓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Moscow Times, 2012/2/2). 또한 2011년 9월에 러시아의 대표적 정책연구기관 가운데 하나인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 연구소(IMEMO)에서 펴낸 「글로벌 전망 2030」에 따르면, 2020년경에 러시아는 국내총생산(2009년 GDP 구매력 기준)의 규모가 세계 5위를 기록할 전망이다(Dynkin, 2012: 115).

표 3 및 표 4를 보면 러시아는 군사부문에서 여전히 대표적인 강대국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특히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최근 수년간 러시아는 국방비 지출을 크게 늘리고 있다는 점이다. 2011년 러시아의 국방예산은 2010년보다 3.9% 증가한 719억 달러(약 82조 원)로 영국(627억 달러)과 프

표 2 GDP로 본 러시아의 경제 위상

IMF 통계 (2010)*			CIA 통계 (2011 추정치)**		
순위	국가	경상가격 GDP 규모 (100만 US\$)	순위	국가	공식환율 GDP 규모 (100만 US\$)
1	미국	14,526,550	1	미국	15,040,000
2	중국	5,930,393	2	중국	6,989,000
3	일본	5,488,424	3	일본	5,855,000
4	독일	3,286,451	4	독일	3,629,000
5	프랑스	2,562,759	5	프랑스	2,808,000
6	영국	2,263,099	6	브라질	2,518,000
7	브라질	2,142,926	7	영국	2,481,000
8	이탈리아	2,060,887	8	이탈리아	2,246,000
9	인도	1,597,945	9	인도	1,843,000
10	캐나다	1,577,040	10	러시아	1,791,000
11	러시아	1,487,293	11	캐나다	1,759,000
12	스페인	1,395,019	12	스페인	1,537,000
13	오스트레일리아	1,245,305	13	오스트레일리아	1,507,000
14	멕시코	1,035,400	14	멕시코	1,185,000
15	한국	1,014,890	15	한국	1,164,000

출처: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2); ** Central Intelligence Agency (2012).

표 3 2011년 국방비 지출 상위 10개국

순위	나라	금액(달러)	증감	GDP 비중
1(1)	미국	7,110억	-1.2%	4.7%
2(2)	중국	1,430억*	6.7%	2.0%*
3(5)	러시아	719억*	9.3%	3.9%*
4(3)	영국	627억	-0.4%	2.6%
5(4)	프랑스	625억	-1.4%	2.3%
6(6)	일본	593억	0%	1.0%
7(9)	인도	489억	-4.9%	2.6%
8(7)	사우디아라비아**	485억	2.2%	8.7%
9(8)	독일	467억*	-3.5%	1.3%*
10(11)	브라질	354억	-8.2%	1.5%
	전 세계	1조 7380억	0.3%	2.5%

보기: ()는 2010년 순위, *는 추정치, **는 국내 보안비 지출 포함.

출처: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2012).

표 4 2010년경 주요 국가의 국방력 비교

	러시아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총병력	1,027백만	1,580백만	2,285백만	175,000	353,000
추정 예비군병력	2천만	865,000	510,000	199,000	70,000
준군사조직원	449,000	0	660,000	0	0
핵탄두 수량	4,834	2,702	186	160	300
국방비(백만 US \$)	58.6	607	84.9	65.3	65.7
GDP 대비 국방비 비율(%)	3.5	4.0	1.9	2.4	2.3

출처: *The Military Balance*, vol. 110(2010), White(2011: 287)에서 재인용.

랑스(625억 달러)를 앞질렀다. 더 나아가, 블라디미르 푸틴은 2012년 대통령 선거 캠페인 기간에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는 한편으로 무기체계의 개선을 포함한 러시아군의 현대화를 위해 향후 10년간 무려 23조 루블(약 70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강력한 국방력을 갖추겠다는 야심적인 계획을 밝힌 바 있다(Путин, 2012). 이와 같이 러시아는 소련시기로부터 물려받은 막강한 군사력과 함께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국제무대에서 강대국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더 나아가, 러시아는 하드파워의 측면에서 세계 일류의 강대국으로 발돋움하려는 목표를 공공연하게 표명해왔다.¹

2. 러시아 재부상의 국내적 배경

러시아가 1990년대의 혼란과 난관을 극복하고 2000년대에 접어들어 국가적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었던 국내적인 배경은 무엇일까. 첫째, 국가 시스템의 정비를 들 수 있다. 푸틴 대통령은 1990년대의 경제침체와 정치, 사회적 혼란의 주된 요인은 약한 국가라고 보았다. 이러한 인식하에 지방정부 수장들과 소수의 독점자본가들(올리가르히)의 영향력을 제어하고 중앙정부의 힘을 강화시켰다. 이

¹ 하지만 하드파워 뿐만 아니라 소프트파워까지 감안했을 때 러시아가 과연 세계의 일류 강대국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일부 분석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낸다. 예컨대, 뉴먼(Iver B. Neumann)에 따르면, 경제력과 군사력 등이 포함되는 물리적, 물질적인 힘(physical, material power), 국제적 규범을 제시하고 그것을 준수하는 도덕적인 힘(moral power), 그리고 국가와 대중 사이에 상호준중에 바탕을 두는 거버넌스 능력(governance power) 등의 측면에서 볼 때 러시아는 세계의 지도국가가 되기에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Neumann, 2008).

를 통해 푸틴은 집권 이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달성했다. 1990년대 후반만 해도 러시아는 효과적인 대외정책을 펼칠 수 있을 정도의 국가시스템을 제도화시키지 못한 상태였던 것이 사실이다(Балуев, 2003). 그러나 푸틴 시기에 접어들어 러시아는 국제무대에서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는데 필수적인 국가 운영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푸틴 정부는 에너지 부문 등 전략산업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시켰다. 크렘린은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독점기업인 가스프롬의 국유화를 완료하고, 이를 외교정책에 적극 활용했다. 그리하여 세계무대를 향해 러시아의 목소리를 강화시킬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외교적 무기를 장착하게 된 것이다(Панюшкин и Зыгары, 2008; Stuermer, 2009).

셋째, 푸틴의 집권 이래 러시아는 국제무대에서 ‘강한 러시아’를 실현시키겠다는 목표를 중요한 국정과제로 내세웠고, 이는 러시아 시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큰 효과를 발휘했다. 예컨대 푸틴은 2005년 의회 국정연설에서 “소련의 해체는 최악의 지정학적 재앙”이라고 언급했다.² 이는 러시아를 강대국의 반열에 올려놓겠다는 의지를 우회적으로 천명한 것이었다. 러시아 시민들은 러시아의 국제위상 강화를 내세운 푸틴을 지지했다. 이는 2000년과 2004년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높은 득표율과 그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중의 긍정적인 평가에서 잘 나타나 있다.

넷째, 외국의 영향력이 러시아의 가치를 침식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러시아 국가의 힘을 전제로 한 고유한 정치 이념이 필요하다는 담론이 러시아 정치사회에 널리 확산된 점을 들 수 있다. 그러한 이념은 2000년대 중반 무렵에 러시아 정치의 방향타가 된 ‘주권민주주의(sovvereign democracy)’에 집약되어 있다. 이러한 권위주의 통치방식은 필연적으로 국가의 역할을 확대시켰고, 이는 국제무대에 있어서 러시아의 역할 증대로 이어지게 되었다. 자신의 권위주의 통치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푸틴은 ‘지정학적 부활감(sense of geopolitical

² 그러나 푸틴을 포함해 정책결정자 그룹 가운데 소련으로의 복귀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사람은 없다. 푸틴은 “소련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Mankoff, 2012: 220).

revival)’을 러시아 국민들에게 주입시킬 필요가 있었다(Ferguson, 2005). 2005년 4월 연방의회 의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행한 국정연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현대 세계에서 러시아의 지위는 러시아가 얼마나 강력하고, 이를 위해 군사, 경제, 제도적인 힘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획득하느냐에 달렸다”고 주장했다(MSNBC.Com, 2005/04/25).

3. 러시아 재부상의 국제적 배경

러시아가 국제무대에서 강한 목소리를 내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다는 인식과 관련이 있다. 이는 국제유가의 상승 분위기 속에서 자국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유효한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크렘린의 자신감에서 비롯되었다. 러시아가 공세적인 대외정책을 펼치게 된 국제적 요인들을 살펴보자.

첫째, 미국의 지배적인 영향력은 유지되고 있지만 단독으로 세계질서를 유지 또는 변화시키는 미국 독주의 시대는 지나갔다는 인식을 들 수 있다. 테러와의 전쟁 때에도 미국은 자신의 힘만으로 새로운 질서 구축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유럽과 기타 지역 국가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것이 원활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러시아는 미국의 상대적인 쇠퇴가 남긴 전략적 영향력의 공백을 기민하게 파고 들어가는 외교력을 구사했다. 9·11 이후 푸틴은 테러와의 전쟁을 주도해 온 미국에 편승해 체첸 문제를 성공적으로 관리해왔으며, 자국의 테러 조직을 지원해 온 것으로 의심되는 알카에다의 본거지를 소탕하는 목적을 띤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협력해왔다. 이로써 러시아는 국내 및 국제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의 공조를 충분히 활용했던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푸틴은 다분히 조롱조로 “부시는 쓸모 있는 얼간이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Washington Post, 2007/2/18).

둘째, 2000년대에 접어들어 중국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증대된 현상이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중국은 국제무대에서의 미국의 독주를 러시아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제어하고자 했다. 러시아 또한 중국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미국의 일방주의 외교에 제동을 걸려는

노력을 해왔다.³ 또한, 상하이 협력기구(SCO)를 통해 중국과의 군사, 안보, 외교적 협력을 강화시킴으로써 러시아는 대외적인 존재감을 제고시켰다(고재남, 2007).

셋째, 에너지 대국으로서의 러시아의 국제적 영향력이 증대된 사실이다. 2006년 주요 8개국(G8)의 의장국으로서 러시아는 에너지 안보를 주요 어젠다로 설정해 세계 주요국 정상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자국의 존재감을 명백하게 보여주었다(Jordan, 2008). 2006년 1월과 2009년 1월에 유럽으로 연결되는 가스 파이프라인을 폐쇄했던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러시아는 에너지 자원을 자신의 대외정책의 유효한 수단으로 충분히 활용해왔다.

넷째, 새로운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가진 집단인 브릭스(BRICS)가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2003년 이래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신흥 4개국을 지칭하는 BRICs가 국제경제 및 국제정치에서 각광을 받게 되었다.⁴ 그러한 배경 아래 브릭스의 일원인 러시아는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가 정당하지 않으며 그 대안적 체제로서 복수의 중심적인 강대국들 사이의 협력에 기반을 둔 정치 및 경제 질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Wall Street Journal, 2009/1/28).

III. 재부상하는 러시아의 외교

1. 2000년대 이후 러시아의 외교정책

2000년대 이후 경제적 부흥과 함께 강대국으로 재등장한 러시아 대외정책의 전반적인 전략과 목표를 살펴보자. 현재 러시아 대외정책의 기본 방향은 메드베데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8년 7월에 승인된 <러시아연방 대외정책개념>, 2008년 8월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천명한 <러시아 대외정책의 주요원칙>,

³ 양국의 이러한 입장은 정상 간의 회동에서 표출되고는 했다. 예를 들면, 2009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러·중 관계 60주년 기념식에서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러·중 양국이 보여준 “세계 다극화와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Bolt and Cross, 2012: 388).

⁴ 2009년 예카테린부르크에서 열린 최초의 브릭스 정상회담 이후 브릭스는 국제금융 및 정치부문의 주요 이슈를 조정하는 유사 블록으로 취급받기에 이르렀다(Roberts, 2010: 40).

그리고 2009년 5월에 채택된 <러시아연방 국가안보전략 2020>⁵ 등에 나타나 있다. 이들 문건들에 반영되어 있는 러시아 대외정책의 기본 노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러시아는 특정 국가에 의한 일극적 지배는 세계정치의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음은 물론 지구화 시대의 국가 간 협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다극적 질서의 구축을 지향한다. 이는 미국의 독주체제가 글로벌 정치무대의 강대국으로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러시아의 노력이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계산에서 비롯된 대외정책의 정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러시아는 다층적이고 다방면(multi-vector)적인 외교와 안보정책을 추구한다.

둘째, 러시아는 미국과 쌍벽을 이루는 핵 강대국으로서 핵확산을 저지하는 것을 외교정책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글로벌 차원의 안정적인 핵 레짐을 유지하기 위해 모스크바는 워싱턴과 협력을 도모해왔다. 옛 소련 시기부터 모스크바와 워싱턴은 전략무기의 제한 또는 감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수차례의 정상회담과 재래식 무기 및 핵무기의 제한과 감축을 위한 협정을 맺은 바 있다. 최근의 예를 들면, 러시아는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 이후 ‘리셋 외교’의 틀 속에서 대미 관계를 복원하려는 정책방향을 설정해 미국과의 새로운 협력기조를 발전시켜 왔다. 예컨대, 2010년 4월에 미국과 ‘새로운 전략무기 감축협정(New START)’을 맺는 등 전략적 안정(strategic stability)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셋째, 러시아는 몇몇 중요한 지역에 대해 외교 역량을 집중해왔다. 우선, 18세기 초 이래 유럽은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대상 지역 가운데 하나이다. 오늘날에도 러시아는 유럽연합 및 유럽 각국과의 에너지, 경제 및 안보협력을 긴밀하게 유지해오고 있다. 유럽은 러시아의 가장 큰 에너지 자원의 수출시장이자 상품교역 및 투자의 파트너이다. 또한 러시아와 유럽은 정치·외교와 안보 부문에 있어서도 서로 전략적인 협력과 연대를 필요로 하는 파트너이다. 한편, 러시아는 전통적인 영향력의 범위에 속하는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독립국가연합

⁵ 이 문건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Стратег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до 2020 года”(Утверждена Указом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12 мая 2009 г. № 537).

(CIS)의 결속을 다지고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해오고 있다.

넷째, 러시아는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현대화를 위해 정치, 외교,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국제협력을 강화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취임 2년차인 2009년 5월에 ‘러시아 경제현대화 및 기술발전을 위한 대통령 위원회’를 출범시켜 에너지, 핵기술, 의료기술, 우주항공 및 통신분야 등 5개 산업부문에 있어서 기술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현대화 계획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메드베데프 정부는 선진 기술과 제도를 지니고 있는 서방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통한 ‘현대화동맹(модернизационные альянсы; modernization alliance)’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제성훈, 2011).

2. 러시아의 공세적 외교: 주요 사례

앞서 살펴보았듯이 러시아는 소련 붕괴 직후의 국내적인 혼란과 국제적인 위상 추락을 회복하고, 최근 수년간 국제무대에서 자신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특히 2000년 블라디미르 푸틴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강한 러시아’를 슬로건으로 내걸어 러시아의 재등장을 가속화시켰다. 푸틴 등장 이후 러시아가 국제무대에서 보인 독립적인 행보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미관계의 변화이다. 소련의 해체 이후 신생 러시아는 1990년대 초반까지 신사고 외교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소위 친서방 외교정책을 표방했다. 이는 국내적으로 광범위한 정치 및 경제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러시아가 대외적으로 개혁에 유리한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고려에서 나온 외교노선이라고 할 수 있다(강봉구, 1999: 212). 이러한 대외정책 노선하에서 러시아는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이 추진했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회원 확대 정책 등에 있어서 온건한 대응을 보였다. 그러나 미국의 독주와 주요 국제 이슈에 있어서 러시아에 대한 전략적 무시정책이 지속되자 모스크바는 1990년대 중반 이래 미국의 일극적 지배체제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다. 게다가 2001년 9·11 이후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세계의 주요 국가들과 손을 잡지 않을 수 없게 된 상황으로 인해 미국의 패권적인 일극지배체제는 상당히 약화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현실을 반영해 많은 러시아 관측통들은 이제 미국의 일극체제는

종언을 고했다는 주장까지 펼치게 된 것이다(Кортунов, 2009).

특히 러시아는 NATO 팽창문제와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의 구축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대립각을 세웠다. 러시아의 주류 정치인들과 여론 주도층은 NATO의 팽창이 미국의 동맹국과 그 밖의 국가들을 구분하는 냉전적 사고방식에 갇힌 정책이라고 비판해왔다. 이들에 따르면,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은 NATO의 팽창을 통해 동유럽 국가들과 옛 소련 국가의 일부를 서유럽권에 끌어들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러한 미국의 정책이 러시아 내부의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해 러시아의 방어적인 대응을 초래했다(Ratti, 2009).

2007년 2월 10일 독일의 뮌헨에서 열린 제43차 유럽 안보정책회의에서 푸틴은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푸틴은 “국제법이 무시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고, 미국이 세계 도처에서 국제법과 개별 국가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동을 보여왔다고 비난했다. 또한 미국이 국제적인 이슈들을 다룸에 있어서 원칙과 규범보다는 정치적 편의에 입각해 군사적인 방법을 즐겨 사용하는 경향을 보여 왔고, 이는 “극도로 위험한”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푸틴은 미국의 주도하에 이뤄지고 있는 NATO의 확대는 유럽과 유라시아 대륙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보다는 회원국과 비회원국들(특히 러시아) 사이의 상호불신과 안보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킬 뿐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Washington Post, 2007/2/12).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일시적으로 형성되었던 미·러 협력외교의 분위기는 2011년 하반기부터 다시 불거져 나온 MD 문제에 대한 양국 간의 이견으로 인해 상당히 냉각되었다. 동유럽에 배치할 예정인 MD 시스템이 러시아를 겨냥하지 않는다는 점을 조약으로 보장해달라는 요청을 워싱턴이 거부하자 모스크바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메드베데프는 이에 대응해 칼리닌그라드 등 러시아 서부국경과 남부국경지대에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배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한, 그는 유럽의 미사일 방어시스템 건설을 백지화하지 않을 경우, 2010년의 ‘새로운 전략무기 감축협정’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BBC Monitoring Former Soviet Union, 2012/1/11). 이로써 양국 간의 협력무드는 상당히 후퇴하게 되었다.

둘째, 기본적으로 러시아는 유럽과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러시아

와 유럽은 에너지 협력은 물론이고 러시아의 현대화에 대한 유럽의 협력을 포함한 포괄적인 경제협력에 의견을 같이 한다. 예컨대, 2010년 5월 러시아의 남부 도시 로스토프-나-도누에서 열린 러시아-유럽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은 러시아-유럽 사이의 ‘현대화를 위한 동반자’ 관계를 선포해 금융위기에 대한 공동대처, 투자 증진, 혁신 발전, 중소기업 발전, 기술 규정 및 기준 통일, 지적 재산권 보호, 에너지 효율성 증대, 사법체계의 효과적인 운영, 비자 면제 추진, 부패와의 전쟁, 시민사회와의 대화 강화 등 러시아-유럽연합이 공동으로 추진해 온 ‘네 개의 공동공간(Four Common Spaces)’의 틀 속에서 광범위한 분야의 협력을 다짐했다(Ria-Novosti, 2010/5/30).

이러한 협력의 기초에도 양측은 몇몇 분야에 있어서는 갈등관계를 노정하고 있다. 우선, 일부 분석가들은 러시아가 옛 소련 국가들의 NATO 및 EU 가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갖고 있으며, 옛 공산권 국가들의 유럽연합 가입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가입을 포함한 주요 이슈에 대해 유럽연합 내부의 이견이 존재하고 있음을 볼 때 러시아는 유럽 내부의 합의와 단결을 교란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본다(Bugajski, 2007). 특히 러시아는 2000년대 접어들어 유럽에 대한 주요 에너지 수출국의 지위를 배경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예컨대, 2008년 6월 독일 베를린에서 행한 연설에서 메드베데프는 주권의 원칙, 평등의 원칙, 국제법 준수의 원칙, 그리고 침략행위의 금지원칙 등에 바탕을 둔 새로운 유럽안보 기구(New European Security Architecture)의 창설을 주창했다(Lomagin, 2011). 이는 미국의 일방주의 정책의 수단이 되어 온 NATO와 근년에 들어 러시아 선거 등 내정에 관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온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러시아의 공세적 외교 제스처로 볼 수 있다. 또한, 에너지 부문에서도 최근 들어 러시아와 유럽 간의 갈등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유럽연합은 2002년경부터 미국과 공조해서 러시아를 경유하지 않는 새로운 파이프라인(Nabucco Line)의 건설에 대해 논의해오고 있다. 이에 대한 맞불작전으로 러시아는 발트해의 해저를 통과해서 독일까지 연결되는 ‘북부 수송로(Nord Stream)’를 2010년에 완공시켰으며 흑해 해저를 통과해 남유럽과 중부유럽으로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수송하는 ‘남부 수송로(South Stream)’의 건설도 추진하고 있다(Nies, 2011).

셋째, 러시아는 자신의 전통적인 영향력의 범위로 간주하고 있는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공을 들여왔다. 일찍이 보리스 옐친(Boris Yeltsin) 대통령은 1995년의 대통령 포고령을 통해 독립국가연합을 러시아 외교정책상 최우선 순위를 차지하는 지역이라고 선언했다(Mankoff, 2012: 245). 실제로 2000년대 러시아의 국력 상승에 힘입어 유라시아 지역에서 러시아의 발언권이 강화되었으며, 이 지역에서 지역협력을 위한 제도 발전에 있어서 러시아의 역할이 뚜렷하게 부각되었다(Lomagin, 2010: 192). 푸틴은 CIS 지역을 러시아의 '특권적 이익'이 걸려 있는 지역으로 간주하고, 이곳에서의 영향력 확보를 강대국으로의 재도약을 위한 교두보로 삼았다.⁶

이를 위해 러시아는 이 지역에서의 지배적인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대표적인 예가 CIS 내의 집단안보조약기구(CSTO)이다. 2002년 10월 출범한 이 기구는 현재 러시아를 비롯해,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6개국의 가맹국을 두고 있다. CIS 지역의 집단안보기구로 출범한 이 조직은 방위, 무기제조, 군사요원의 훈련 및 평화유지 활동 등에 있어서 구성 국가들 간의 협력을 도모한다. 이 밖에도 CSTO는 공동 통합 방공시스템 운영, 마약밀매와 테러주의에 대한 공동대응 등에서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de Haas, 2010: 40-41). 2001년에는 CSTO의 전신인 집단안보조약(CST)이 신속 대응군을 창설해 러시아를 비롯한 가맹국들이 역내의 안보문제에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집단안보기구를 통해 러시아는 독립국가연합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공고히 하는 한편, NATO의 동진 팽창에 대응하고, 미국을 비롯한 외부 세력이 옛 소련지역에 진출하는 것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되었다(Mankoff, 2012: 256-257).

한편, 경제적인 측면에서 러시아는 독립국가연합 지역에서 유럽연합과 유사한 경제공동체를 발전시키려는 야망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2000년 10월에 러시아를 비롯해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5개국이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를 결성했다. 2006년에는 우즈베키스탄이 가입해 회

⁶ 푸틴은 “우리는 독립국가연합 지역을 전투장으로 만들 필요는 없으며, 이 지역을 협력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Ferguson, 2005).

원국 수는 6개국으로 늘어났다. 한걸음 더 나아가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등 3개국은 역내 경제협력을 더욱 긴밀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2010년 7월에 관세동맹 창설에 합의했다. 이 관세동맹은 2012년 1월부터 ‘단일경제공동체(Single Economic Space)’로 발전적으로 재출범하게 되었다. 이로써 관세동맹 국가 간의 무역은 100% 자유화되었으며, 전 세계 총생산의 2.66%에 달하는 공동시장이 형성되었다(이재영 외, 2011).

에너지 부문에서 러시아는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CIS 국가들과의 협력을 중시해왔다. 특히 모스크바는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천연가스를 국제시세보다 훨씬 싼값으로 공급받아 이를 유럽에 수출하는 등 러시아를 통과하는 기존의 수송망을 볼모로 ‘근외지역’ 국가들에게 압도적 영향력을 발휘해왔다. 더 나아가 라브로프(Sergei Lavrov) 외무장관이 언급했듯이, 러시아는 에너지 협력 관계에서 비협조적인 CIS 국가들에 대해서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Frickenstein, 2010). 한편으로,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서방의 카스피해 연안 및 중앙아시아 지역의 석유·가스전 진출과 러시아를 우회하는 파이프라인 건설에 맞서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주요 에너지 생산국에 대한 정상외교를 강화해왔다. 2007년 5월 푸틴은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을 연쇄적으로 방문해 ‘유라시아 가스동맹’을 제안했다. 푸틴의 후임자인 메드베데프 역시 2008년 7월에 아제르바이잔을, 2009년 4월에는 투르크메니스탄을 각각 방문해 쌍무적인 에너지 협력관계를 강화시켰다(Nanay, 2009).

2008년 8월 조지아(그루지야) 내부에서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남오세티아 공화국에 조지아 정부가 병력을 투입해 사태를 진정시키려 하자 러시아 정부군이 출동해 이를 저지하면서 양국 간에 전쟁이 발발했다. 미국 등 국제사회의 비난과 휴전압력 속에서 개전 닷새 만에 모스크바는 트빌리시와 휴전협정을 맺었다. 이것은 옛 소련 지역에 자신의 특별한 이익이 걸려 있음을 강조하는 러시아가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의 이웃 국가들이 그러한 모스크바의 이익을 존중하지 않을 경우 이 지역의 안정과 평화가 담보될 수 없다고 하는 자신의 입장을 전 세계에 확고하게 인식시킨 사건이다. 말하자면, 옛 소련 국가들 가운데 우두머리의(главный) 위치를 자임하는 러시아는 2008년의 러시아-조지아 전쟁을 통해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자국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Sherr, 2008: 17). 이를

일부에서는 러시아가 국제무대에서 재부상했음을 선언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러시아는 이제 구소련지역을 뒤뜰 또는 ‘영향력의 범위’로 간주하는 권력정치의 관점에서 벗어나 이곳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재정의할 시점에 와 있다는 주장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Nikitin, 2008). 스스로의 역량 범위 내에서 미래 지향적인 안보 및 경제협력을 이끌어나가는 한편으로 미국, 유럽, 중국 등 여타 강대국들 간의 협력과 경쟁 속에서 역내에서 자국의 역할을 재조정해 나가는 것이 러시아의 과제라는 것이다. 러시아는 스스로 산업을 다각화하고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을 현대화시켜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러시아가 그러한 현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방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 세계경제로의 통합을 꾸준히 추구해 나가지 않을 수 없다(Mankoff, 2012: 261). 오늘날 러시아는 혁신과 현대화를 통한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서방과의 협력을 모색해야 하는 한편으로 CIS에 대해 자신의 ‘특권적’ 영향력을 유지해야 하는, 다소 모순된 정책을 동시에 펼쳐나가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고 할 것이다.

IV. 러시아의 재부상과 동북아 외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립국가연합(CIS), 유럽, 그리고 미국에 대한 러시아 대외정책의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또한 이 지역에 대해 러시아가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그러한 지역에 비해 아직도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 러시아의 역할과 영향력은 제한적이다(Blank, 2010: 62). 그러나 최근 들어 러시아는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 자국의 영향력을 유지 또는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오고 있다. 러시아는 특히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에 합류함으로써 자신의 향후 발전에 있어서 핵심 고리인 극동과 시베리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러시아 내부의 균형발전과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며, 이는 거꾸로 아태 지역 내의 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Коргунов, 2009).

근년에 들어와 러시아 대외정책에 있어서 동북아는 유럽에 버금가는 중요

성을 인정받고 있다(Лукин, 2010). 정치적인 측면에서 동북아는 러시아로 하여금 NATO의 팽창으로 빚어진 전략적 손실을 만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주는 지역으로 간주될 수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러시아는 세계경제에서 역동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동북아 및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의 현대화를 촉진시킬 수 있음은 물론, 상대적으로 낙후된 극동 및 시베리아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이제, 동북아와 한반도에 있어서 러시아의 국가이익과 전략을 살펴보자. 첫째, 러시아는 국경지대의 안정을 중시하는 전통을 지켜왔다. 따라서 모스크바는 자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국경지대인 한반도에서의 핵확산과 무력충돌 등 안보상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 증대에 대해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다.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 반대하고 모든 형태의 남북한 무력분쟁과 긴장고조 상황을 방지하는 데 관심을 쏟는 것은 바로 한반도의 안정이 자국의 이익에 긴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러시아는 스스로 주요 강대국으로 간주하면서 동북아 지역이 특정 국가에 의한 독주가 아닌 다극적인 질서 속에서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러시아의 시각에서 한반도는 주요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교차되는 지대로서 글로벌 강대국을 지향하는 러시아로서는 동북아 지역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곳이다. 이를 위해 러시아는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유지하는 한편으로, 동북아 역내의 다자적 협력구도를 이룩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예컨대, 러시아는 2001년 중국과 ‘선린·우호·협력조약’을 맺고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시켜오고 있다. 그리하여 양국관계는 바야흐로 400년 역사상 최고의 단계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Vnukov, 2006).

셋째, 러시아는 동북아 근린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국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시베리아와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장기 국가프로젝트를 수립해 놓고 있다.⁷ 이를 위

⁷ 예를 들면, 2007년 3월에 발표된 ‘극동 및 바이칼 지역의 발전전략 개념(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해 러시아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자국의 이익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간주한다. 또한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국가들은 시베리아와 극동 러시아 지역에 풍부하게 분포하고 있는 에너지 자원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이들 동북아 국가들은 러시아 극동과 동시베리아의 개발을 위한 주요 잠재적 투자자로서의 중요성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동북아 이웃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자국의 현대화 프로젝트의 파트너를 확보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동북아 경제권, 더 나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권에 통합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제 동북아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주요정책을 살펴보자. 첫째, 동북아 지역에서 러시아는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우선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러시아는 중국과의 공조를 통해 이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적 영향력을 제어하고자 한다. 러시아는 최근 들어 미국이 한국, 일본과 각각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한·미·일 3개국ی 북한 문제에 대해 공조를 강화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해 오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 등의 이슈에 있어서도 북한의 도발적 행위를 비판하는 한편으로 평양에 대한 제재조치나 압력을 가하려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같은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한편, 양국은 교역, 투자, 러시아산 무기 및 에너지 자원의 대중국 수출 등의 측면에서 교류를 강화해 오고 있다. 특히, 중국이 지역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최근 야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물류기지 및 국제적 산업단지 조성사업인 창·지·투 개발사업에 있어서 양국의 협력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미 북한의 나진항 사용권을 획득한 러시아는 나진항의 부두 확충을 계획하고 있으며, 나진-하산 철도 복원 및 현대화 작업을 마쳤다(김상원, 2012: 124). 이러한 개발사업을 바탕으로 러시아는 중국의 창·지·투 사업에 참여해 연해주를 포함한 극동지역의 경제발전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Байкальского региона—Концепция)이다(Министерство Регион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07). 메드베데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이 지역에 대한 보다 광범위하고 새로운 발전 법안이 제안되었다. 그 명칭은 ‘극동 및 바이칼 지방의 사회-경제적 발전 전략 2025(Стратегия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Байкальского региона на период до 2025 года)’이다(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09a;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09b).

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일본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세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다. 러시아는 2차 세계대전 종전 이래 일본과 소위 ‘북방 4개 섬’(남쿠릴 열도 4개 섬)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분쟁을 벌여오고 있다. 1990년대 초반, 러시아는 한때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하에 일본에 대해 섬의 일부를 반환하려는 시도를 한 적도 있었다(Chang, 1998). 또한 푸틴 집권 초반인 2000년에는 양국 간에 평화조약을 체결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하지만, 러시아는 최근 들어 일본과의 영토문제에 있어서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2010년 11월 1일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남쿠릴 열도 가운데 두 번째로 크고, 홋카이도에서 가장 가까운 쿠나쉬르 섬을 전격 방문해 남쿠릴 열도 4개 섬에 대한 확고한 실효지배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더 나아가 메드베데프는 남쿠릴 열도 지역의 안보 강화를 위해 미사일을 포함한 최신 무기를 증강 배치해야 한다고 언급함으로써 일본의 강력한 항의를 불러 일으켰다(최태강, 2011). 러시아 지도자의 그러한 행보는 자국의 국익을 확고히 수호하는 강대국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려고 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영토 문제와는 별개로 러시아와 일본 양국은 신뢰에 입각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예컨대, 2011년 11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에너지 부문을 포함한 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해 러시아가 가능한 협력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⁸

셋째, 러시아는 푸틴 1기 이래 한반도 문제에 있어 남북한 등거리 외교를 구사해왔다. 한국과는 경제협력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쌍무적 협력관계를 강화시키려는 노력을 해왔다. 2011년 양국 간 총교역량이 240억 달러를 돌파할 정도로 한·러 경제협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한편, 2000년 푸틴 집권 이후 러시아는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양국 간 우호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의 로켓발사와 핵개발 문제로 불거진 한반도 긴장상황에 대

⁸ 상호협력에 대한 양국 정상 사이의 이러한 합의는 양국 간 영토 문제에 대한 이견이 있음에도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2011/11/12).

해서도 일정한 목소리를 내려는 시도를 해왔다. 기본적으로 러시아는 북한의 핵 개발을 반대하고,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모스크바는 그것의 해결에 있어서는 평화적이고 정치적인 방법을 고수해왔다. 러시아는 1차 북핵위기가 발생했던 1990년대 중반에 북핵문제를 다루는 다자 협의 과정에서 배제된 경험을 거울 삼아 2002년 이후에 벌어진 2차 북핵위기의 해결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입장을 나타냈다. 예컨대 2007년 6월, 같은 해 2월에 열린 제5차 북핵 6자회담 3단계 회의에서의 합의 사항에 따라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anco Delta Asia) 은행에 동결되어 있던 2,500만 달러에 이르는 북한자금의 회수 과정에서 러시아 중앙은행이 중재자 역할을 떠맡는 등 러시아는 북핵 문제의 진전을 위한 의미있는 기여를 해왔다(장덕준, 2012: 305). 러시아는 천안함 및 연평도 포격 사태 등 한반도의 위기상황에 대해서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비판을 가하는 한편으로 평화적인 해결을 강조하는 등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자국의 존재감과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푸틴의 집권 3기에 접어들어서도 모스크바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한 등거리 외교정책에 입각한 현실주의적 행보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러시아는 동북아 지역에서 다자안보협력체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러시아는 옛 소련 때부터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서의 집단 안보체제를 창설할 것을 주창해왔다. 이러한 러시아의 입장은 북핵 6자회담에 러시아가 구성원으로 참여하면서 보다 구체화되었다. 러시아는 6자회담을 북핵문제 해결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이를 동북아의 항구적인 다자안보협력체로 제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⁹ 그런데 안보협력체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당사국들 사이에 신뢰의 구축과 협력의 네트워크가 축적되어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동북아에서 당장 안보협력체가 등장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러나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이 당사국들 사이에 보다 포괄적인 안보협력 이슈를 위한 현실적인 대화와 협상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러시아가 이처

⁹ 2007년 2월에 이뤄진 6자회담의 결과(소위 '2·13 합의')에 따라 러시아는 '동북아 평화 및 안보 메커니즘에 관한 실무그룹'의 의장국으로서 6자회담 당사국들이 합의할 수 있는 평화 및 안보의 원칙하에 6자회담 과정에서 형성된 협력적 관계를 항구적인 안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발전시켜 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Toloraya, 2008).

럼 동아시아 지역의 다자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중국 또한 동남아 국가들과의 다자적 협력을 추구함으로써 ‘아시아의 협조체제(Concert of Asia)’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생겨났다(Acharya, 1999).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이러한 다자외교 틀의 구축은 주요 강대국 가운데 상대적으로 역내 영향력이 열세인 러시아에게는 매력적인 구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자적 외교구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¹⁰

다섯째, 러시아는 동북아의 다자안보체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지역협력체에 참여해 외교활동의 폭을 넓혀 나가고 있다. 즉, 러시아는 글로벌 차원에서 주요 8개국(G8)과 주요 20개국(G20)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들어 러시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다자협력 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모스크바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 Summit) 등 다양한 지역협력체에 가입해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2012년 9월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APEC 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이를 계기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시베리아 및 극동러시아의 발전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나아가 2012년 대선 캠페인 기간 중에 푸틴 대통령은 “이러한 러시아의 노력은 관련 국가들이 역내 협력을 통해 ‘새로운 아시아’를 창출해내려는 과정과 부합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Московские новости, 2012/02/27).

여섯째, 러시아는 남·북·러 3각 경제협력의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러시아는 2000년대 초반부터 줄기차게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한반도 종단

¹⁰ 현존하는 국제기구 가운데 동남아 국가연합(ASEAN)의 지역안보포럼(ARF)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19세기 초 영국,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 등 유럽의 국가들이 공통의 이해관계와 공통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각국의 내정과 국제질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낸 ‘유럽협조체제(Concert of Europe)’가 동아시아에 적용되기는 곤란하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예컨대 중국은 동아시아 기존질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미국 또한 역내에서 자국의 지배적 영향력을 포기하려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 등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으로 인해 주요 강대국 사이에 이해관계에 대한 공통인식이 유지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Khoo and Smith, 2001). 또한, 역내 강대국 사이의 힘의 불균형 상황으로 인해 안정적인 다자협력 외교의 틀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이다(Lo, 2008: 124).

철도와 연결시키기 위한 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남북한 당국과 이 문제를 논의해 왔다. 러시아와 북한, 그리고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 위탁가공무역, 북한 산업시설 및 인프라의 현대화, 농업, 임업 및 어업 분야에서의 협력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다(장덕준, 2003).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2012년 6월 현재 남북한과 러시아 등 3자가 한 자리에서 모여 협력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까지는 진전되지 않았다. 북한의 핵개발을 둘러싼 위기상황으로 인해 2000년대 중반 이후 삼각경제협력은 수면 아래 잠복되어 왔다. 그러한 소강상태를 거쳐, 최근에는 북한을 경유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한국으로 수출하는 프로젝트가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2011년 8월 24일 동시베리아의 울란우데에서 열린 메드베데프-김정일 정상 회담을 계기로 북한을 경유하여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한국으로 수송하는 소위 남·북·러 가스관 사업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었다.¹¹ 이 프로젝트를 통해 러시아는 천연가스 수출시장의 다변화 및 극동지역의 경제활성화 등을 도모하는 경제적 실리와 함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제고와 중국에 대한 견제 등 다중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V. 맺음말

러시아의 중장기적 목표는 세계정치 무대에서 강대국으로서 자신의 위상을 확보하는 것이다. 국경지대에서의 안정을 담보하고, 주요 글로벌 이슈에서 자신의 국익과 자신의 목소리가 무시당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한다(Stuerner, 2009: 222-223). 그러한 목표 아래 러시아는 다양한 지역과 영역에서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외교적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이러한 러시아의 행보를 볼 때, 러시아는 과연 글로벌파워로 복귀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러시아는 세계 최정상급의 역할을 갖춘 글로벌파워와는 아직도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예컨대,

¹¹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북한 경유 가스관을 통해 러시아는 한국으로 연간 100억~120억 m^3 의 가스를 공급할 예정이다(Vorontsov, 2012: 141).

근년에 접어들어 브릭스가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그러나 내부의 약한 응집력으로 인해 브릭스가 그러한 기대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게다가 중국은 물론이고 다른 브릭스 구성국가들에 비해 러시아의 경제력이 뒤떨어져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Roberts, 2010).

한편으로, 그러한 하드파워적인 측면 이외에도 러시아는 글로벌파워로서의 자격에 결격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다시 말해, 진정한 글로벌 강대국이 되려면 군사력 등 하드파워도 갖춰야 하지만, 정치제도, 사회적 민주화와 개방성 등 합리적인 통치형태(거버넌스)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러시아는 글로벌 강대국의 조건에 아직 근접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Neumann, 2008). 따라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가 자신의 대통령 재임 시에 강조했던 현대화(modernization) 프로젝트가 수사에만 머물지 않고, 실현될 때에만 러시아가 진정한 글로벌파워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Trenin, 2010).

어떻든 지난 수년간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강력한 군사력과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배경으로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을 증대시켜 왔다. 그렇다면 재부상하는 러시아가 한반도에 갖는 함의는 무엇인가? 한편으로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역할에 대해 다소 평가 절하하는 분석도 존재한다. 일부 분석가들에 따르면,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독립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Blank, 2010: 82). 더 나아가,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 러시아의 역할은 매우 미미해 중국조차 러시아와의 협력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Lo, 2008). 이러한 분석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중국에 비해 러시아는 동북아 전반에 걸쳐, 보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의 수단 등에 있어서 그 영향력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한반도에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러시아의 입장은 확고하다. 중국과 북한 사이에 틈이 벌어지거나, 미중 관계가 갈등을 일으킬 경우,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펼칠 수 있는 활동의 영역은 더욱 넓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볼 때 한반도와 동북아에 있어서 러시아의 역할을 미미한 것으로 취급해 대러시아 협력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은 한국의 국가이익이란 관점에서 볼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으로서는 러시아가 오히려 여러 측면에서 협력을 강화시켜야 할 중요한 파트너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러시아는 북한의 도발 역제를 포함해 한반도 안정

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내 강대국의 하나이다. 러시아는 한반도의 통일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모스크바는 한반도 주변 4강 가운데 통일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러시아는 한국의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러시아는 한국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 및 천연자원을 근거리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훌륭한 교역 파트너인 동시에 한국은 러시아의 현대화프로젝트와 극동 및 시베리아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협력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가운데 특히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이 성사될 경우, 한국은 에너지 수송비용 절감 등 경제적인 실리를 올릴 수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프로젝트는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끄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한국과 러시아와의 협력강화는 북한의 강경 정책을 누그러뜨리고, 연착륙으로 유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고무시킬 수 있는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그 존재감을 높여 가고 있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엮어 나갈 것인가에 따라 한국의 미래, 더 나아가 한반도의 명운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투고일: 2012년 5월 7일 | 심사일: 2012년 5월 21일 | 게재확정일: 2012년 6월 12일

참고문헌

- 강봉구. 1999. 『현대러시아 대외정책의 이해: 대외정책노선 형성과정(1992~1998)』.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 고재남. 2007. “러시아의 재부상과 한반도 정책에 대한 함의.”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11. 22), 1-21.
- 김상원. 2012.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 장덕준 편. 『중·러관계와 한반도』, 106-136. 파주: 한울 아카데미.
- 이재영 · Sherzod Shadikodjaev · 박순찬 · 황지영. 2011. 『CIS 경제통합추진현황과 정책 시사점: 관세동맹을 중심으로』. KIEP 연구보고서 11-26.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

원.

- 장덕준. 2003. “동북아 경제협력과 러시아: 남북한-러시아 간 삼각협력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12(1), 293-322.
- _____. 2012. “중·러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장덕준 편. 『중·러관계와 한반도』, 287-324. 파주: 한울 아카데미.
- 전홍찬. 2006. 『통계로 이해하는 러시아』. 서울: 집문당.
- 제성훈. 2011. “메드베데프 정부의 새로운 대외정책노선: 정책기조, 변화의 원인, 수행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5(1), 31-60.
- 최태강. 2011.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분쟁심 구나시리방문 이후 러-일관계의 변화.” 『슬라브학보』 26(2), 209-233.
- Acharya, Amitav. 1999. “A Concert of Asia?.” *Survival* 41(3) (Autumn), 84-101
- Armijo, Leslie Ellicott. 2007. “The BRICs Countries (Brazil, Russia, India, and China) As Analytical Category: Mirage or Insight?.” *Asian Perspective* 31(4), 7-42.
- Baev, Pavel. 2003. “Putin Reconstitutes Russia’s Great Power Status.” *PONARS Policy Memo*, No. 318 (November).
- Blank, Stephen. 2010. “Russia’s Failure in Asia.” *UNISCI Discussion Papers* 24 (October/ Octobre), 61-82.
- Bolt, Paul J. and Sharyl N. Cross. 2012. “중·러관계: 미국학자의 시각.” 장덕준 편. 『중·러관계와 한반도』, 373-416. 파주: 한울 아카데미.
- British Petroleum. 2012.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1.” <http://www.bp.com/sectionbodycopy.do?categoryId=7500&contentId=7068481>(검색일: 2012. 4. 21).
- Bugajski, Janus. 2007. “Russia’s Far Abroad.” *The Wall Street Journal Europe*, March 22.
- Central Intelligence Agency. 2012. *CIA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rs.html>(검색일: 2012. 5. 4).
- Chang, Duckjoon. 1998. “Breaking through a Stalemate?: A Study Focusing on the Kuril Islands Issue in Russo-Japanese Relations.” *Asian Perspective* 22(3), 169-206.
- Christenson, Thomas S. 1999. “China, the U.S.-Japan Alliance and the Security Dilemma in East Asia.” *International Security* 23(4) (Spring), 49-80.
- Cooley, Alexander. “Behind the Central Asian Curtain: the Limits of Russia’s

- Resurgence.” *Current History* 108 (October), 325-332.
- de Haas, Marcel. 2010. *Russia's Foreign Security Policy in the 21st Century*. New York: Routledge.
- Dynkin, Alexander 저. 김현택 · 이상준 역. 2012. 『글로벌 전망 2030: 러시아의 전략적 시각』.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Ferguson, Niall. 2005. “A Worrying Resurgence of Russia’s Desire to be a Superpower.” *The Sunday Telegraph*, June 19.
- Frickestein, Scott. 2010. “Views & Analysis: The Resurgence of Russian Interests in Central Asia.” *Air & Space Power Journal* 24(1) (Spring), 67-74.
- Friedman, Thomas L. 2007. *The World Is Flat: A Brief History of the Twenty-first Century*. New York: Picador/Farrar.
- Hancock, Kathleen J. 2007. “Russia: Great Power Image versus Economic Reality.” *Asian Perspective* 31(4), 71-98.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2.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17, Washington, D.C. <http://www.imf.org/external/data.htm> (검색일: 2012. 5. 4).
- Jordan, Pamela. A. 2008. “International and Domestic Dimensions of Russia’s G8 Presidency in 2006.” *Canadian Slavonic Papers* 50(3/4) (September-December), 397-423.
- Khoo, Nicholas and Michael L.R. Smith. 2001. “A ‘Concert of Asia’?: Why There is No Substitute for U.S. Power.” *Policy Review* 108 (August/September), 73-83.
- Larson, Deborah Welch and Alexei Shevchenko. 2010. “Status Concerns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In I. William Zatzman and Saadia Touval eds.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Extents and Limits of Multilateralism*, 182-207.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o, Bobo. 2008. *Axis of Convenience: Moscow, Beijing, and the New Geopolitics*. London: Chatham House.
- Lomagin, Nikita. 2010. “Medvedev’s ‘Fourteen Points’: Russia’s Proposal for a New European Security Architecture.” In Roger Kanet ed. *Russian Foreign Policy in the 21st Century*, 181-203. Houndmills, UK: Palgrave Macmillan.
- Mankoff, Jeffrey. 2012. *Russian Foreign Policy: The Return of Great Power Politics*. [Second Edition]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 MSNBC.Com. 2005/04/25, http://www.msnbc.msn.com/id/7632057/ns/world_news/

- t/putin-soviet-collapse-genuine-tragedy/ (검색일: 2012. 4. 27).
- Nanay, J. 2009. "Russia's Role in Eurasian Energy Market: Seeking Control in the Face of Growing Challenges." In J. Perovic, R. W. Orttung, and A. Wenger, eds. *Russian Energy Power and Foreign Relations: Implications for Conflict and Cooperation*, 109-131. New York: Routledge.
- Neumann, Iver B. 2008. "Russia as a Great Power, 1815-2007."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Development* 11, 128-151.
- Nies, Susanne. 2011. "The EU-Russia Energy Relationship: European, Russian, Common Interests?" In Roger Kanet ed. *Russian Foreign Policy in the 21st Century*, 266-286. Houndmills, UK: Palgrave Macmillan.
- Nikitin, Alexander. 2008. "Russian Foreign Policy in the Fragmented Post-Soviet Space." *International Journal on World Peace* 25(2) (June), 7-31.
- Ratti, Luca. 2009. "Back to the Future?: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NATO-Russia Relations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International Journal* 64(2) (Spring), 399-422.
- Remington, Thomas F. 2012. *Politics in Russia* [7th Edition]. New York: Longman.
- Roberts, Cynthia. 2010. "Russia's BRICs Diplomacy: Rising Outsider with Dreams of an Insider." *Polity* 42(1) (January), 38-73.
- Russian Federation. 2005. "Foreign Policy Concept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In Andrei Melville and Tatiana Shakleina eds. *Russian Foreign Policy in Transition: Concepts and Realities*, 89-103. Budapest, Hungary: Central European University Press.
- Secieru, Stanislav. 2006. "Russia's Foreign Policy under Putin: 'CIS Project' Renewed." *UNISCI Discussion Papers* 10 (Enero/ January), 289-308.
- Sherr, James. 2008. "Looking after Number One: Why has Russia Reverted to Traditional Means of Controlling Its Former Satellite States?." *The Sunday Telegraph*, August 10.
-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2012.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2012*. Stockholm: SIPRI.
- Stuermer, Michael. 2009. *Putin and the Rise of Russia*. New York: Pegasus Books.
- Toloraya, Georgy. 2008. "The Six Party Talks: A Russian Perspective." *Asian Perspective* 32(4), 45-69.

- Trenin, Dmitri. 2010. "Russia's Conservative Modernization: A Mission Impossible?" *SAIS Review* 30(1) (Winter-Spring), 27-37.
- Vorontsov, Alexander. 2012. "The Korea-Russia Gas Pipeline Project: Past, Present, and Future." *SERI Quarterly* 5(1), 139-144.
- Vnukov, Konstantin. 2006. "Russians, Chinese Brothers Forever." *International Affairs* 52(2), 129-134.
- White, Stephen. 2011. *Understanding Russian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Балуев, Д.Г. 2003.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России на рубеже веков." Под ред. А.В. Торкунова *Десять лет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и*, 61-64. Москва: Росспэн.
- Кортунов, С.В. 2009. *Современная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России: стратегия избирательной вовлеченности*. Москва: Издательский д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Высшей школы экономики.
- Лукин, Артем. 2010. "Перспектив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Международные процессы*, том 8, № 2 (Май—август) <http://www.intertrends.ru/twenty-second/008.htm> (검색일: 2012. 4. 17).
- Министерство Регион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07. "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Байкальского региона—Концепция." Москва.
- Московские новости, 2012/02/27. <http://mn.ru/politics/20120227/312306749> (검색일: 2012. 5. 14).
- Панюшкин, Валерий и Михаил Зыгарь. 2008. *Газпром: Новое русское оружие*. Москва: Захаров.
-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09 а. "Стратегия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Байкальского региона на период до 2025 года." <http://www.minpromtorg.gov.ru/docs/projects/0190> (검색일: 2012. 2. 20).
-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09б. "Стратег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до 2020 года." Утверждена Указом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12 мая 2009 г. № 537. <http://www.scrf.gov.ru/documents/99.html> (검색일: 2012. 4. 15).
-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2011. "Встреча с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ом Японии Есико Нодой."

<http://kremlin.ru/news/13506> (검색일: 2012. 5. 1).

Путин, Владимир. 2012. “Быть сильными гарантии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для России.”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20 Февраля 2012 г.

Abstract

Re-emerging Russia and Northeast Asia

Duckjoon Chang Kookmin University

Since Putin came to power, Russia has adopted an aggressive diplomatic stance with the help of domestic stability and rapid economic growth, fuelled by the rise of oil prices during the first decade of new millennium. First, Russia has showed an independent position toward the United States as in the case of the Missile Defense system in Eastern Europe, for instance, but Russia has also cooperated with the US in areas such as nuclear arms reduction. Second, utilizing its position as a major energy supplier, Moscow has been trying to maximize its influence over Europe. Third, in efforts to maintain its privileges through the CIS region, Russia has taken pains to achieve political and economic integration among some of the CIS countries through multilateral cooperation bodies including the EurAsEC and the CSTO. Fourth, as for the Northeast Asian (NEA) region, Russia aspires to enhance its own influence by strengthening ties with China, and by sustaining its involvement and interests with certain issues in Korea. Russia's participation in the Six-Party Talks is one example. Given Moscow's enhanced position in the NEA region and the global arena, it would be desirable on the part of South Korea to form amicable and cooperative relations with Russia in various areas. The recent discussions on the triangular cooperation model involving the two Koreas and Russia, therefore, seem appropriate for the mutual benefits of each country

involved.

Keywords | Russia, Putin, energy, aggressive diplomacy, Northeast Asia, Trans-Korean Gas Pipeline

